

4차산업 혁신은 행복도시에서
민간투자기반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

(가)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案)

일시: 2021년 7월9일(금) 오후 4시(16:00)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발족위원: 여의도정책연구원 | 프론티어M&A | 국방정보통신협회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 | 한양대학교첨단융합구조연구실
미래창조융합협회 | SBS

축사 : 김부겸 국무총리 | 박병석 국회의장 |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철규 국회의원 | 이원욱 국회의원 | 기타 (예정)

【출발점】

도시화 편중의 사회는 미세먼지, 교통, 물 부족, 재난,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사회기술 필요성은 현재의 삶을 4차 산업 초 연결시대로 이끌고 있다.

사회적 가치관의 향상과 삶의 질 증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혁신과 수용의 자세를 견지하며 국가의 정책방향성과 시장논리에 부합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준비단계를 거쳐 본격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가 주도의 스마트시범도시 사업은 부산과 세종에서 막대한 국고를 기반으로 시범도시가 구축되고 있으나 시장의 논리를 떠난 국가주도형 사업으로서 다양한 재검토가 논의되어야 한다.

【영역】

◆ 모빌리티 ◆ 헬스케어 ◆ 교육 ◆ 일자리 ◆ 에너지 ◆ 환경 ◆ 문화
◆ 쇼핑 ◆ 생활, 공공안전 ◆ 거버넌스 ◆ 쿼텀녹색혁명 ◆ 지구온난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의 혁신적 가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목표】

보다 나은 개인의 삶의 질 증진과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삶이 될 것이며, 다음 세대로의 새로운 변화를 이어가는 소통과 혁신의 지속가능한 구현과 창의적 미래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인프라】

◆ 영역별 플랫폼 ◆ 블록체인 기반 ◆ 협업기반 혁신 ◆ 빅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 AI 분석 ◆ 이노베이션 ◆ 모니터링 ◆ 유, 무선 네트워크 ◆ IOT 네트워크 ◆ 각종 하드웨어

【SOC】

◆ 개발계획 ◆ 실시계획 ◆ 스마트시티 비전 도입 ◆ 지속가능 지역 도시문화(영농, 수산, 임업, 전통자원문화 및 기타) ◆ 지역브랜드 창출

【SPC】

국가+지자체+민간투자(파이낸싱)+시행자(민간)= 서비스기획 + 서비스구축
+인프라구축 + 도시운영

설립 목적법인은 대형사업자 수익위주 사업, 지역재투자 부재, 재정부족, 만성적자, 일회성 전시행정 등 기존 SPC 투자의 문제점 해소를 검토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기반 SPC 사업은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간투자 기반의 사업으로서 기존의 SPC 투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요 수익사업을 지역참여회사, 도시통합운영, 지속가능 모델구축, 혁신산업, 공

공성기반, 예산투자 최소화. 첨단신규사업 도입기반의 혁신기술 생태계 제공에 집중한다.

평균적 삶의 질 증진은 국민행복 이라는 사회적 가치형성을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다양한 객관적 성과지표를 통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

- ◆ 데이터기반 행정정책 의식변화 ◆ 삶의 질 개선 ◆ 국민행복 화두
- ◆ 행복지수 관심증가 ◆ 투명성 요구 ◆ 물리적, 정신적 인프라구축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스마트시티-SOC 사업은 첨단 SI 기업군의 참여와 지역 발굴형기업 포함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창출에 기여함으로써 도농간 문화격차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출발점이 된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